

## 원효의 『이장의』 성립 배경에 대한 일 고찰

김수정(법성)\*

I. 서론

II.所知障의 문제

III. 隱密門의 문제

IV. 은밀문과 현료문의 중층적인 구조의 형성배경

V. 결론

### 요약문

본 논문은 원효의 『이장의』가 성립한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첫째는 소지장의 문제인데, 이것은 제7말나식과 관련이 있다. 7말나식의 개념이 구체화되면서 유가행과 안에 번뇌설 중 소지장에 대한 개념이 발생하고, 그것을 계기로 번뇌설은 번뇌장과 소지장의 二障說로 정리되게 된다. 곧 제7말나식의 개념이 명료해지지 않으면 소지장의 개념 역시 불명료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장의』의 경우 제7말나식과 소지장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이고 명료한데, 이것은 현장이 번역한 신유식 계통의 경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원효가 『이장의』에서 제8식을 妄識으로 간주하는 듯한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은밀문에 대해서인데, 혜원은 이장설을 정리함에 있어서 제7말나식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원효는 은밀문 역시 현료문과 마찬가지로 제7말나식 및 妄으로서의 第八阿梨耶識을 고려하여 二碍說을 정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는 이장설의 구조에 대해서인데, 혜원이 이장설을 3종의 중층적 구조로 조직하는 형태와 원효가 은밀문과 현료문을 조직하는 기본 구조는 둘 다 『승만경』을 바탕으로 하고, 원효가 다시 이것을 혜원의 기본적 개념에 따라 隱現으로 배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원효의 『이장의』는 전체적인 조직 구조는 혜원의 『대승의장』 「이장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이장의』 내의 은밀문과 현료문에서 설하는 각각의 識說과所知障 및 智碍는 오히려 신유식 계통의 영향을 받아서 성립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원효(元曉), 혜원(慧遠), 이장의(二障義), 대승의장(大乘義章), 번뇌(煩惱), 신유식(新唯識)

\* 동국대학교 박사수료. sujeong@chol.com

## I. 서론

『二障義』에는 元曉(617-686)의 煩惱論과 治斷論에 대한 관점이 집약되어 있다. 따라서 원효의 불교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논저이다. 원효가 『이장의』 이후의 다른 저술들에서 ‘번뇌’와 관련된 항목이 등장할 때마다 그 대부분의 설명을 자신의 『이장의』에 미루고 있는 데서도 이 점은 잘 드러난다.

그러나 『이장의』의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갈파되고 있는 이장사상을 그저 원효사상의 기초를 형성하는 부분 정도로 이해하는 시각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곧 『이장의』가 원효가 내세우는 수행론의 전체적인 구조를 결정한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번뇌에 대한 원효의 입장을 보여주는 논서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장의』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이 대부분 다음과 같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이장의』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원효의 대표적인 저술로 평해지는 『大乘起信論疏』(이하 『기신론소』)의 사상적 관점을 논하기 위한 부가적인 논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이장의』를 언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다. 이때 『이장의』는 그 자체로서보다는 『기신론소』에 부수된 저술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起信論二障章’과 같은 명칭은 『기신론소』의 별편으로서 『이장의』를 이해하는 대표적인 명칭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기신론소』와 『이장의』의 대단히 밀접한 사상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명칭이기는 하지만, 『이장의』를 독립된 저술로 취급하는 데는 장애가 된다. 최근의 원효사상을 대상으로 한 논의들이 『이장의』를 언급하는 경우는 대부분 ‘別編으로서의 二障義’라고 하는 관점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는다. 『이장의』를 별편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논자도 굳이 문제 삼을 것은 아

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한 관점 때문에 『이장의』를 『대승기신론』을 주석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인 번뇌론만 다루는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번뇌란 것은 마음의 작용의 일종이며, 그 마음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서 불교사상은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곧 번뇌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이장의』에서 나타나는 번뇌에 대한 관점은 『기신론소』의 마음에 대한 해석인 ‘一心義’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大乘起信論別記』(이하 『별기』)의 마음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이장의』에서는 중생의 마음이 전변하는 양상에 대한 해명으로서 번뇌론이 등장하며, 다시 『이장의』에서 전개된 번뇌론을 바탕으로 『기신론소』의 일심의가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장의』는 원효의 기신론 연구가 진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독립된 단계의 하나로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장의』를 그야말로 번뇌론 그 자체로서만 다루는 경우이다. 『이장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번뇌의 성격과 의미, 그리고 치단론을 중심으로 『이장의』를 논의하는 시각들이다. 이 경우는 『이장의』를 독립적으로 다루기는 하지만, 『이장의』가 저술되어야 했던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는 앞선 시대의 번뇌론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둘 뿐이다. 『이장의』가 저술되어야만 했던 필연적인 이유를 번뇌론의 전개 안에서만 찾는 것은 한계를 내포하게 된다. 우선 『별기』와 『기신론소』의 중요한 연결고리로서의 『이장의』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장의』의 사상사적 위치가 단편적으로 해명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또 원효의 시대를 전후한 불교사상의 패러다임의 전환과정에서 『이장의』가 가지는 의미를 놓치게 된다.

원효의 시대에 동아시아의 불교는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수·당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불교사상의 흐름들이 통합되어가는 한편, 현장-규기로 이어지는 신유식사상의 등

장은 이전의 불교에서 보여주던 ‘마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기함으로써 불교계 전반에 파문을 던지게 된다. 흔히 구유식과 신유식의 대립구도로 이해되는 양상이다. 이 대립구도를 중심으로 불교사상의 핵심 주제인 ‘마음’을 파악하는 관점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며, 따라서 마음의 주된 작용양상의 하나인 번뇌를 파악하는 관점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장의』는 그 중에서도 마음 작용의 중요한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는 번뇌의 의미와 양상, 기능, 분류, 번뇌의 치단과 그 계위에 이르기까지 통일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원효에 의해 기획되었던 저술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장의』를 해명함에 있어서 번뇌의 문제만을 시야에 두고서 접근하는 것은 원효의 참된 의도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중에서도 『이장의』의 현료문에 대해서는 현장이 번역한 신유식 계통 특히 『성유식론』의 번뇌론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큰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은밀문의 경우는 구유식 계통 특히 정영사 혜원의 『대승의장(大乘義章)』의 「이장의(二障義)」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는 기존의 견해<sup>1)</sup>에 대하여 최근 반박 주장이 제기되어 있다.<sup>2)</sup>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논자의 관점과 최근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원효의 『이장의』 속에 나타나는 번뇌론, 특히 은밀문과 현료문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II.所知障의 문제

무명에 대해서 세존은 “꿈임을 알지 못하고 꿈의 生起를 알지 못하고 꿈의 消滅에 대해 알지 못하고 꿈을 消滅하는 道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무명이라고 한다”<sup>3)</sup>고 했다. 覺은 결국 無明을 밝힌 정도에 따라 대소·광협·심천·명암의 차이가 있게 된다. 그래서 小乘의 覺과 大乘의 覺에 있어, 二乘을 自覺, 보살을 覺他, 佛을 覺行窮滿<sup>4)</sup>이라 하며, 『기신론』에서는 不覺(十信)·相似覺·隨分覺·究竟覺(佛)을 든다.<sup>5)</sup>

같은 논리로 覺을 장애하는 번뇌에도 그 내용에 따라 三障·二障說이 있다. 『구사론』 등에서는 본래 業障·煩惱障·異熟障의 三障<sup>6)</sup>을 들고 또 『구사론』, 『대비바사론』에서는 染汚無知와 不染汚無知를 말하는데,<sup>7)</sup> 이는 곧 아라한도와 불도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한편 대승의 유가계 경론 등에서는 「煩惱障·所知障의 二障煩惱가 있다」<sup>8)</sup>고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도 부파불교에서부터 대승 유가행파에 이르는 번뇌론의 전개가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번뇌장·소지장의 이장번뇌라는 형태로 번뇌론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은 대단히 후대의 일이며, 그것이 중국에 전해지고 명료하게 인식된 것 역시 상당히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다.

사실 번뇌론에 있어서 소지장의 개념이 등장하고 그것이 중국 불교인들에게 명확하게 인식된 것은 玄奘에 의해서 『성유식론』이 번역된 이후의 일이다. 현장 이전의 유식학과, 이른바 지론종이나 섭론종에서는 이 소지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론종의 경우에 더욱 명확하게 보이는 사실이다. 석길암은 지론종의 심식 구조를 해명한 최근의 논문에서 “지론종에서

1) 李平來[1996], Muller[2006].

2) 石吉岩[2011].

3) 『增一阿含經』 卷46(大正藏2 p.797中; 中部 No9 Vol 1, p. 54.), “云何名爲無明 所謂不知苦 不知習(集) 不知盡 不知道 此名爲無明.”

4) 慧遠, 『大乘義章』 20末(大正藏44, p.846中) “覺行窮滿 故名爲佛.”

5) 『起信論』(大正藏32, p.576中).

6) 『俱舍論』(大正藏29, p.1上, p.29中, p.247上).

7) 『大毘婆沙論』 卷99(大正藏27, p.511中-下); 『俱舍論』 卷1(大正藏29, p.1上).

8) 『瑜伽論』 卷33(大正藏30, p.468下).

는 보리유지의 번역경론에서부터 아리아식을 제8佛性識으로서의 아리아식과 제7아리아식으로 보는 관점이 존재했고, 이것이 후대에 이르면서 점차 眞智·緣智/眞修·緣修로 구별되어 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9)</sup>고 말하며, 『대승의장』 「팔식의」에서 染汚意로서의 제7아타나식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같은 『대승의장』의 「이장의」 번뇌설에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sup>10)</sup>

결국 지론종의 단계에서는 소지장에 대한 개념은 불분명하며, 염오의의 제7식이 가지는 번뇌론에 있어서의 문제점 역시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섭론종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정영사 혜원 이후의 섭론종의 전개 특히 심식설의 문제에 대해 석길암은 요시무라 마코토(吉村 誠)의 견해<sup>11)</sup>를 인용하면서 “정영사 혜원에 의해서 지론종 남도파의 심식설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를 계기로 섭론학파는 진망화합의 제8아리아식을 세우는 8식설의 흐름과 혜원 이전의 지론종 남도파의 팔식설에 『섭대승론』의 제7아타나식만을 추가한 9식설을 주장하는 흐름의 두 계통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고 지적한다.<sup>12)</sup> 또 전통적인 8식설을 지지해온 남도의 지론사 대부분이 9식설을 주장하는 섭론사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sup>13)</sup> 이것은 새로운 섭론학파가 어떤 흐름이든 간에 지론학파와 교섭하기 이전의 섭론학파와는 사상적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곧 정영사 혜원이 지론종 남도파의 불완전한 8식설을 『섭대승론』의 8식설 구조 및 『기신론』 「생멸문」의 일절과 결합시켰을 때, 진망을 일체로 하는 새로운 8식설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래장과 아리아식이 합(合)해져서 일체가

된 것으로서의 8식설이 된다. 또 한편으로 혜원 이전의 옛 8식설을 지지하는 남도의 지론사는 혜원 이후에 이 제8식의 안쪽에 다시 제9아마라식(실은 如來藏인)을 세우는 것으로 기존의 설과 『섭대승론』 및 혜원의 새로운 설에 대응했다는 것이다. 곧 진제 역출의 경론으로부터 보이는 초기 섭론학파의 사상은 혜원 이후에 진망화합의 제8식을 세우는 섭론학파와 제9아마라식을 세우는 섭론학파라는 두 가지 흐름-실은 어느 것이나 지론종 남도파의 변신인-에 의해 완전히 대치되는 상황이 발생<sup>14)</sup>했다고 주장한다.

곧 심식설의 구조에 있어서 기존의 지론종의 식설위에 제9아마라식만을 추가한 것이 섭론종의 식설이라면, 섭론종 역시 지론종과 마찬가지로 염오의로서의 제7식과 관련되는 번뇌, 곧 소지장에 대한 문제의식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효의 『이장의』에는 이 제7식, 신유식인 법상종의 개념으로서는 말나식이라고 번역되는 염오식의 문제와 관련되는 번뇌인 소지장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물론 이것은 현료문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된다. 물론 소지장에 대한 개념은 은밀문에서도 역시 ‘智碍’라고 하는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때문에 원효의 『이장의』에서 소지장의 의미와 그 기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되어 있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원효의 『이장의』에서 ‘소지장’이라고 하는 문제만을 별도로 구분해서 살펴본다면, 원효의 『이장의』에 나타나는 번뇌설은 현장에 의한 신유식 계통의 경론 번역 이전의 중국불교사상 중의 그 어느 것보다도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원효는 『이장의』에서 다음과 같이 소지장 및 지애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렇다면 원효의 소지장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먼저 소지장에 대해 역시 원효의 『이장의』 「釋名義」 조에 있는 해석은 다음과 같다.

9) 석길암[2010: 256].

10) 석길암[2010]; [2011].

11) 吉村 誠[2007].

12) 吉村 誠[2007: 232].

13) 吉村 誠[2007: 233].

14) 석길암[2009].

所知라 함은 盡所有성과 如所有성의 두 가지 지혜로 비추기 때문에所知라 한 것이니, 법집등의 惑이 지혜의 성품(智性)을 가리고 막아서 깨달음으로 볼 수(現觀) 없게 하고 경계의 성품(境性)을 덮고 가려서 관하는 마음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所知障이라 이름한다. 이것은 가려진 바(所蔽)가 작용에까지 미친(及) 것을 따른 이름이다.<sup>15)</sup>

盡所有성과 如所有성은 『해심밀경』·『유가론』 등에 보이는데, 『해심밀경』에서는 보살이 了知해야 할 十種相으로 1)盡所有性, 2)如所有性, 3)能取義, 4)所取義, 5)建立義, 6)受用義, 7)顛倒義, 8)無倒義, 9)雜染義, 10)清淨義를 들고 있다.<sup>16)</sup> 그리고 이 가운데 盡所有성은 “諸雜染 諸淨法中 所有一切品別邊際是名此中 盡所有性”<sup>17)</sup>이라 했다.

원효는 자신의 『해심밀경소』에서

알아야 할 所知의 法이 染法과 淨法을 벗어나지 않으니, 染淨法 가운데 있는 바 一切品類差別 萬有諸法을 껴안아 두루 다했기 때문에 盡所有性이라 한다.<sup>18)</sup>

고하여 盡所有성은 세속의 생사법(染法)과 출세간의 해탈법(淨) 모두를 뜻하는 것으로 했다. 또 『해심밀경』에서는 이어서 “五數蘊과 六數內處 六數外處 如是一切了”라 했으며, 원효는 그 주에서 “五蘊은 一切有爲法을 가리키는 말이며 六數의 內外處라 함은 일체의 有爲 · 無爲의 諸法을 總攝한 뜻으로 盡所有性이라 한다”<sup>19)</sup>고했다.

如所有성에 대해서 『해심밀경』은 “一切染法 가운데 있는 바 진여가 바로 如所有性”<sup>20)</sup>이라 했고, 원효는 그 疏에서 “染淨法 가운

15) 『二障義』, p.9, “所知障者盡所有性如所有性 二智所照故名所知 法執等惑遮止 智性不成現觀, 覆蔽境性不現觀心由是義故名所知障 此從所蔽及用得名.”

16) 『解深密經』 卷3(大正藏16, p.698下).

17) 『解深密經』 卷3(大正藏16, p.699下).

18) 圓測, 『解深密經疏』 卷22(圓光佛學院本 p.1121).

19) 圓測, 『解深密經疏』 卷22(圓光佛學院本 p.1121).

20) 『解深密經』 卷3(大正藏16, p.689下).

데 一味眞如의 平等法性을 如所有性이라 한 것이다”<sup>21)</sup>라고 했다. 이로써 보면 如所有성은 지상의 초지위에서 비로소 깨닫는 근본지를 가리키고, 盡所有성은 일체의 차별인과의 법을 아울러 두루 깨닫는 후득지니 初地로부터 十地까지의 사이에 성취하는 차별지, 속지라고도 하는 방편만족의 지혜임을 알 수 있다.<sup>22)</sup>

그런데 원효는 同註釋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한다.

이 二성에 대해 여러 論師들의 種種異說이 있다. 顯揚聖敎論 第五卷 등은 本經과 같은데, 大乘阿毘達磨集論과 大乘雜集論 같은 데서는 蘊界處의 三을 盡所有性이라 했고, 四聖諦 · 十六行相과 眞如四法, 곧 三解脫을 如所有性이라 했다. 集論에서는 「盡所有성은 蘊界處이고 如所有성은 四聖諦, 十六行相, 眞如, 일체행무상, 일체행고, 일체법무아, 열반적정 공무상을 일컫는다」고 했다. 雜集釋에서는 저 分量邊際가 있을 뿐이니 그러므로 蘊界處 三을 建立해서 盡所有性이라 했고, 이러한 뜻의 차별문을 말미암은 알 바의 경계이기(了所知境)때문에 如所有性이라고 한다<sup>23)</sup>

『유가사지론』 제26권에서는, 色蘊 밖에 다시 다른 色이 없고 受想行識 밖에 다른 受想行識이 없으니, 일체의 有爲事가 五法에 속하는 바이며 일체제법이 界處에 속하는 바이다. 일체의 알 바 四聖諦에 攝함이 또한 이러하여 盡所有性이라 이름한다. 저 반연하는 바가 이 진여실성이니 이것이 眞如性이 四道理를 말미암아 도리의 성품을 갖춘다. 또한 이것은 상대의 도리(觀待道理), 인과의(作用)도리, 깨닫는(證成)도리, 본래 그런(法爾) 도리를 일컫는 것이다.

또 원효는 “煩惱障의 因子인 인집 등의 惑이 소지장의 본체(境智)를 아주 가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무상보리를 遮止하지는 못하며 인공은 깨달았지만 법공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已斷不得彼

21) 圓測, 『解深密經疏』 卷22. p.1122.

22) 鎌田茂雄[1954].

23) 圓測, 『解深密經疏』 卷22(圓光佛學院本 p.1122).

故) 소지장이라 이름할 수 없는 것이다.”<sup>24)</sup>라 했다. 또 같은 원리로

法執등의 惑이 지극히 작은 부분적 의미에 있어서는 생사의 報를 아주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所知障의 무명이 二乘의 생사해탈, 열반적정을 막지는 않는다. 一分의 법공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生死 없는 아공의 眞如는 확실히 깨달았으므로 번뇌장이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이다<sup>25)</sup>

라고 했다. 『성유식론』 권9에 “所知障者는 謂執遍計所執實法の 薩迦耶見을 而爲上首한 見·疑·無明·愛·恚·慢 등이다. 覆所知境과 無顛倒性하여 能障菩提를 名所知障이니라”<sup>26)</sup>고 하여 즉 변계소집의 實法을 집착하는 살가야견을 上首로 하여 근본번뇌와 수번뇌가 능히 所知境과 전도가 없는 實相을 覆蔽하여 보리지혜를 장애하는 작용이라 했다.

이상의 검토에 의하면, 원효의 소지장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현장에 의해서 전래된 신유식 계통의 경론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효의 이장 번뇌설 가운데, 소지장과 지애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현장이 전래한 신유식 계통의 경론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은밀문 및 현료문의 번뇌장과 소지장을 삼세육추에 배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효는 이 과정에서 제8식을 망식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제8식을 망식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장이 번역한 무성의 『섭대승론석』에서 확인해지는 경향이다. 이와 달리 지론종의 『십지경론』이나 『능가경』 혹은 진제가 번역한 세친의 『섭대승론석』에서는 제8식인 아리아식이 眞識 혹은 眞妄和合識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효가 『이장의』에서 제8아뢰야식을 망식으로 간주하는 것, 染

汚義로서 제7식을 상징하고 있는 것 등은 그것이 은밀문에서의 문제이든 현료문에서의 문제이든 기본적으로 구유식의 영향이 아니라 신유식의 영향이라고 상정해야 할 것이다.

### III. 隱密門의 문제

이장의 體相을 파악함에 있어 원효는 현료문과 은밀문의 二門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현료문과 은밀문에 대한 원효의 생각은 현존 『무량수경중요』나 『이장의』 등의 단편적인 설명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원효는 『무량수경중요』의 第二明淨土因에서 현료의와 은밀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 言語 안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顯了的의 뜻이고 하나는 隱密的의 뜻이다. 隱密的의 뜻은 순전히 청정한 第三의 淨土果로서 下輩의 十念功德을 말한다. . . 이러한 것을 隱密義의 十念이라고 한다. 顯了的의 義는 十念의 상태를 말하며 또한 第四의 淨土에 대해서 말한다. 이러한 것을 顯了的의 十念相이라고 한다.<sup>27)</sup>

이와 같이 현료와 은밀의 뜻을 하나의 언어에서도 찾고 엮는 내용은 내용에서도 찾는다. 『금강경삼매경론』 권중에 “隱이라는 것은 종자가 토지 밑에 있는 것과 같고, 顯이라는 것은 싹과 줄기가 땅 위로 출현한 것과 같다”<sup>28)</sup>라고 하였다.

24) 『二障義』, 第一釋明義條, p.9. “然人執等惑亦有障小分境智, 而未遮於無常菩提亦不蔽於一切種境 雖而斷此不得 彼故是故不立 所知障名.”

25) 『二障義』, 第一釋明義條, p.9. “法執等惑亦有小分感生死義, 而不蔽於二乘涅槃亦不止於分段生死 雖不斷此而證理故, 是故不受煩惱障名.”

26) 『成唯識論』 卷9(大正藏31, p.48下).

27) 元曉, 『無量壽經宗要』(韓國佛敎學全書1, p.558上). “一言之內 含有二義 謂顯了義 及隱密義 隱密義者 望第三對純淨土果 以說下輩 十念功德. . . 是爲隱密義之十念 言顯了義十念相者 望第四對淨土而說. 如是至心名爲十念 此是顯了十念相也.”

28) 元曉, 『金剛經三昧經論』 中(韓佛全1, p.625), “隱者種子在土下故 顯者芽莖出

오형근은 “위에서 이장의에 나타난 현료문과 은밀문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第二의 出體相이라는 항목에서는 현료문은 유가종의 학설로 설명하고 있고, 은밀문은 기신론의 학설로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9)</sup>라고 하고, 그러나 이상과 같은 근거에 의하여 현료문은 『유가론』이고 은밀문은 『기신론』이라고 하는 학설은 옳지 않다고 했다.<sup>30)</sup>

이렇게 볼 때 어떤 내용이 表象化된 것을 顯了라하고 또 隱匿되어 드러나지 않는 것을 隱密이라 한다. 이러한 隱顯이 없는 것을 無相이라 하고 또한 寂滅이라 한다. 이상과 같은 뜻에 의하여 元曉는 일체의 번뇌를 근본을 표현하는 二障의 뜻에 담아서 그 본래 表裏의 관계를 일차적으로 규명하고, 이것을 다시 本體論 現象論 차원에서 顯了門과 隱密門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顯了門과 隱密門이라는 언어는 二障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원효가 즐겨 쓰던 언어이고 설명 방법임을 알 수 있다.<sup>31)</sup> 원효는 이장의 체성에 대해서도 은밀문과 현료문으로 나누어 心識의 세계를 절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장의』 가운데 第二 出體相에 나타난 二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현료문은 다시 1)자성으로 體相을 나타내는 것 2)八識과 三性 3)纏과 隨眠 4)習氣와 二障 5)五法과 二障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그 다음 은밀문은 1)육중염심을 煩惱碍體로 하고 2)근본무명을 智碍體로 하는 二種の 번뇌를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원효의 저술들에는 은밀과 현료에 대한 설명이 여러 곳에 나타난다. 그런데 이 은밀과 현료라는 구분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현료문과 은밀문의 용어는 『해심밀경』<sup>32)</sup>에서 발견할 수 있으

地上故.”

29) 吳亨根[1988: 165].

30) 吳亨根[1988: 166].

31) 吳亨根[1988: 167].

32) 『解深密經』 卷5(大正藏16, p.709中), “或復安立隱密顯了記別差別.”

며, 론으로서 『대지도론』, 『유가론』 등을 들 수 있다. 원측은 “『지도론』에서는 「초전법륜적 성문과는 顯了의 果이고 보살의 무생 법인은 隱密敎라고 했다. 또 『해심밀경』에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의 三性是 현료설이고 相無性 · 生無性 · 勝義無性の 三無性是 은밀설이라.”<sup>33)</sup>고 했다. 아쉽게도 원효의 『해심밀경중요』나 『疏』는 산실하여 이 부분의 해설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선 『대지도론』과 『해심밀경』 등에서의 영향을 고려할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장의』에서 번뇌설을 은밀과 현료의 두 문으로 구성하는 방식은 좀더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미친 저술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정영사 혜원의 『대승의장』, 『이장의』와 『대승기신론소』, 『이장』 부분이 그러하다.

『이장의』를 발굴하여 보고한 오초 에니치(橫超慧日)은 「元曉의 二障義について」(『東方學報』11, 東方文化學院, 1940)에서 “窺基가 『大乘法苑義林章』에서 整理하고 있는 斷惑說과 그 이전의 斷惑說이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兩者를 함께 是認하고 그 차이를 明確하게 하여 批判會通하기 위해서였다.”고, 원효의 이장(顯了門)과 이에(隱密門)의 번뇌설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후 이 평가는 큰 무리없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李平來<sup>34)</sup>나 최근의 Charles Muller<sup>35)</sup>의 경우는 이 오초 에니치의 견해를 부분적으로 곡해하여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곧 이평래와 Charles Muller는 이장과 이에 중에서 二障 곧 은밀문이 혜원(523-592)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곧 이 은밀문의 이에설이 『기신론』을 포함한 여래장사상 계통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구유식 계통의 번뇌설을 정리한 것이고, 그 정리에 혜원의 영향이 있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하지만 석길암은 최근의 논문에서 “그러나 원효의 은밀문의 이에설과 그것의 선구로 지적되는 혜원의 이장설 간에는 아주 중요

33) 圓測, 『解深密經疏』(韓佛全1, p.335上).

34) 李平來[1996].

35) Muller[2006].

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은 식설상의 차이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혜원은 이장설을 정리함에 있어서 제7말나식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원효는 은밀문 역시 현료문과 마찬가지로 제7말나식 및 妄으로서의 第八阿梨耶識을 고려하여 이장설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6)</sup>라고 지적한다.

곧 『대승의장』 「이장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장설을 정리하고 있다.

聖道を 능히 가로막는 것을 장애[障]라고 한다. 장애가 한량없지만 대강을 취하여 말한다면 대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煩惱障이고 둘째는 智障이다. 이 二障의 뜻에 3중[三番]의 해석이 있다. 첫째는 四住의 번뇌를 번뇌장으로 하고, 無明住地로써 智障을 삼는다. 둘째는 五住의 性結을 번뇌장으로 하고 사(事)에 대한 無知로써 지장을 삼는다. 무명에 둘이 있는데, 첫째는 이치에 미혹한 무명이고 둘째는 사(事)에 대한 무지이다. 이치에 미혹한 무명이 바로 性結이다. 셋째는 五住의 性結과 사(事)에 대한 무지를 함께 번뇌장으로 삼고, 分別緣智로써 지장을 삼는다.<sup>37)</sup>

첫 번째의 二障이 두 번째의 번뇌장에 포섭되고, 두 번째의 二障이 함께 다시 세 번째의 번뇌장에 포섭되는 중층적인 구조이다. 『대승의장』에서는 위의 인용문과 거의 동일한 문장을 제시한 다음, 二障에 대한 3중의 중층적인 해석[三番]에 대하여 각각 隱現으로 나누어 설명한다.<sup>38)</sup> 初番은 二乘之人과 菩薩之人으로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地前과 初地以上, 혹은 十地 내에서의 三地以前과 四地以上, 七地以前과 八地以上 등으로 나누어 隱現을 구분한다.

36) 석길암[2011].

37) 혜원, 『大乘起信論義疏』(大正藏44, p.188下); 『大乘義章』(大正藏44, p.561下), “能障聖道名之爲障. 障乃無量, 取要言之凡有二. 一者煩惱障, 二者智障. 此二障義有三番釋. 一者四住煩惱爲煩惱障, 無明住地以爲智障. 二者五住性緒爲煩惱障, 事中無知以爲智障. 無明有二, 一迷理無明, 二事無知. 迷理無明是性結也. 三者五住性結及事無知同爲煩惱障, 分別緣智以爲智障.”

38) 『大乘義章』 「二障義」(大正藏44, pp.561下-564中).

그런데 석길암은 이 은현의 이장설 중에서 세 번째의 “五住의 性結과 사(事)에 대한 무지를 함께 번뇌장으로 삼고, 分別緣智로써 지장을 삼는다.”는 구절에서 뒤의 분별연지를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의가 『유마경현소』에서 지론사의 식설을 제시한 부분 곧 “지론사는 말하였다. 6식은 분별식이고, 7식은 智障이니 波浪識이며, 8식은 眞常識이다. 智識은 緣修이니, 八識이 드러나면 7식은 곧 멸한다. 팔식은 眞修이니, 자연히 體와 融即하여 항상 적정하다.”<sup>39)</sup>는 부분을 인용한 다음, 세 번째와 지의가 인용한 부분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지적한다. 그런 후 “지의에 의하면 지론사들은 7식을 智障, 智識, 波浪識으로 칭하고 있다.<sup>40)</sup> 한편 혜원은 分別緣智를 智障으로 삼는다고 말한다.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사고임을 알 수 있다. 七識緣智는 念이며, 無明이 멀하면 곧 緣智도 멀한다. 그리고 칠식의 念이 없으면 곧 佛地를 향함이 된다고 말한다. 곧 7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7식의 念 곧 無明이 ‘現’이 되고, 八識眞智는 ‘隱’으로 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곧 칠식의 연지가 ‘현’이고 팔식의 眞德이 ‘은’인 상태가 곧 제8의 진화합식의 眞智가 되는 것이고, 7식은 ‘현’의 ‘緣智’인 것이 아닐까.”<sup>41)</sup>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원효 『이장의』의 은밀문이 정영사 혜원의 『대승의장』 「

39) 『維摩經玄疏』 卷5(大正藏38, p.552上). “地人言, 六識是分別識, 七識是智障波浪識, 八識是眞常識. 智識是緣修, 八識若顯七識即滅. 八識名眞修, 任運體融常寂.”

40) 智顗의 『維摩經玄疏』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通敎의 緣修에서는 七識智로서 佛性眞理를 비춘다. 界內의 見思와 界外의 無明을 끊어서, 眞解가 드러나면 번뇌[結]가 끊어진다. 곧 七識의 圓智가 蕭然하여 바깥(경계)에 얽매이지 않음을 해탈이라고 한다. 이것은 不眞宗에서 밝힌 해탈로 부사의해탈은 아니다. 만약 眞宗이라면 八識眞修의 체가 드러나면 二障을 여의고 모두가 融(即)하여서 연음도 없고 얽매임도 없음을 부사의해탈이라고 한다(通敎緣修, 用七識智照佛性眞理. 斷界內見思界外無明, 若發眞解斷結. 則七識圓智, 蕭然累外, 名爲解脫. 此是不眞宗明解脫非不思議解脫也. 若眞宗, 八識眞修, 體顯離二障, 皆融無得無累, 名不思議解脫也).”

41) 석길암[2010: 262-263].

이장의」의 설을 정리한 것이라고 하는 이평래와 Charles Muller의 견해가 부당하다는 지적은 상당 부분 긍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밀문이 『대승의장』의 내용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아니라 점을 수궁한다고 하더라도, 은밀문과 현료문이라는 이분의 구조마저도 계승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영사 혜원은 『대승의장』 「이장의」와 『대승기신론소』 「이장」 부분에서 이장설을 3종의 중층적인 구조로 체계화하고 있고, 표층구조에서 심층구조로 연결되는 구조에서 원효는 혜원의 구조를 도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석길암 역시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제4장은 그 점에 대해서 서술하기로 한다.

#### IV. 은밀문과 현료문의 중층적인 구조의 형성배경

먼저 앞서 들었던 정영사 혜원의 이장설을 제시한다.

聖道を 능히 가로막는 것을 장애[障]라고 한다. 장애가 한량없지만 대강을 취하여 말한다면 대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煩惱障이고 둘째는 智障이다. 이 二障의 뜻에 3중[三番]의 해석이 있다. 첫째는 四住의 번뇌를 번뇌장으로 하고, 無明住地로써 智障을 삼는다. 둘째는 五住의 性結을 번뇌장으로 하고 사(事)에 대한 無知로써 지장을 삼는다. 무명에 둘이 있는데, 첫째는 이치에 미혹한 무명이고 둘째는 사(事)에 대한 무지이다. 이치에 미혹한 무명이 바로 性結이다. 셋째는 五住의 性結과 사(事)에 대한 무지를 함께 번뇌장으로 삼고, 分別緣智로써 지장을 삼는다.<sup>42)</sup>

42) 각주 37과 같음.

그리고 다시 원효가 말하는 은밀문과 현료문의 관계를 살펴보자.

두 번째 은밀문에 의해서 이장의 體를 드러낸다. 6종의 염심은 번뇌애의 체이고, 근본무명은 智碍의 體이다. 6종의 염심이라는 것은 1은 一執相應染이고, 2는 不斷相應染이고, 3은 分別智相應染이고, 4는 現色不相應染이고, 5는 能見心不相應染이고, 6은 根本業不相應染이다. 이 중에 앞의 둘은 6식 중에 있고, 3의 한 가지 염은 제7식에 있고, 뒤의 세 가지 염은 제8식에 갖추어져 있다. 그 중에 자세한 것은 기신론별기 가운데 갖추어 설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거듭 밝히지 않는다. 이 번뇌애의 여섯 가지 염 가운데에 이미 앞 부분의 二障을 모두 포섭하였다.<sup>43)</sup>

마지막 문장에서 煩惱碍가 앞의 현료문의 二障을 포섭하는 구조임을 명시하여 밝히고 있다. 다만 慧遠과 달리 3重 구조가 아니라 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밑줄 친 부분은 혜원과 명확하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六種染心을 六識과 七識 그리고 八識에 배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중 第7識은 末那識을 의미한다.

주지번뇌와 기번뇌의 이중번뇌설은 본래는 『본업경』과 『승만경』에 따른 번뇌설이다.<sup>44)</sup> 일체 초목과 중자가 대지에 의해 짝이 트고 자라듯이 住地煩惱에 의해 起煩惱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

43) 『二障義』, pp.21-22. “二依隱蜜門，出二障體者。六種染心，是煩惱碍體。根本无明，是智碍體。言六染者，一執相應染，二不斷相應染，三分別智相應染，四現色不相應染，五能見心不相應染，六根本業不相應染。此中初二，在於六識。第三一染，在第七識。後之三染，俱在第八識。於中委曲，具如起信論記中說，此不重顯。此煩惱碍六染之中，已攝前門二障皆盡。”

44) 『본업경』과 『승만경』이라고 했지만, 명칭과 공능 그리고 분류에 있어서는 『승만경』의 설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하의 주지번뇌와 기번뇌의 기본적인 관계성 및 구조에 대한 원효의 설명은 『승만경』의 “何以故有煩惱?是阿羅漢辟支佛所不能斷煩惱有二種。何等爲二?謂住地煩惱及起煩惱。住地有四種。何等爲四?謂見一處住地，欲愛住地，色愛住地，有愛住地。此四種住地，生一切起煩惱。起者剎那心剎那相應。世尊，心不相應無始無明住地。世尊，此四住地力，一切上煩惱依種。比無明住地，算數譬喻所不能及。”이라는 구절에 기초하여 설명되는 것이다. 비슷한 설명이 『본업경』에도 존재한다. 다만 이들 구문에 의거하여 혜원은 3종의 중층적 구조로, 원효는 은밀문과 현료문으로 나누어 구성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나 원효는 기번뇌는 현료문의 번뇌장과 소지장으로 말하며, 모든 心相應의 纏과 隨眠을 일컫는 것으로 하고 주지번뇌에서 다시 四住地를 生起하기 때문에 起惑이라 한다고 했다.<sup>45)</sup>

주지번뇌에 오주지번뇌가 있다. 오주지번뇌란 중생을 三界九地의 생사에 집착케 하는 惑에 다섯 가지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지번뇌는 이 오주지번뇌를 가리킨다.

① 見一處住地는 一切見住地라고도 한다. 견은 육계·색계·무색계의 見惑을 말한다. 이것은 지적인 미혹으로서 見道位에서 四諦를 관할 때 일시에 끊어지기 때문에 見一處라 이름한다. 住地는 이 번뇌(見惑)가 근본이 되어 온갖 번뇌가 일어나므로 주지라고 한다. 대승의장 제5권에서 혜원은 이것을 해석하여 見을 五利使煩惱, 즉 身見·邊見·邪見·見取見·戒禁取見이며 추구성이라 하였다. 또한 견도에 들어감과 동시에 一處에 이것을 并斷함으로 견일처라고 한다.

② 欲愛住地는 欲은 欲界의 번뇌를 가리키며 愛는 貪愛 곧 四惑이다. 四惑은 貪·瞋·癡·慢의 四에 통하거나와 貪愛는 다음 생을 받는 뜻이 가장 강하므로, 貪愛로써 四惑을 나타냈다. 즉 십근본번뇌 가운데에 무명과 五見을 제외한 그 밖의 五欲에 대해 집착하는 번뇌이다. 이것은 見道할 때 見惑은 끊었으나 修惑은 一品도 끊지 못했으므로 육계의 九品修惑부터 닦아서 끊어야 하는데 욕애주지는 곧 육계의 수혹이다.

③ 色愛住地는 색은 색계, 愛와 住地는 위와 같다. 色界의 四惑이며 다시 말하면 색계의 번뇌로서 무명과 五利見을 제외한 그 밖의 오욕을 버렸는데 色有(欲界의 果報)에 대해 執着하는 번뇌는 아직 남아 있는 것을 가리킨다. 곧 색계천의 修惑이다.

④ 有愛住地는 有는 무색계이며, 곧 무색계에 있는 번뇌를 가리키는데 무명과 見을 제외한 색탐을 버렸지만 자기 몸에 대한 애착하는 번뇌를 일컫는다. 곧 무색계의 수혹이다.

⑤ 無明住地는 無明은 우치하고 암둔한 마음의 자체이며, 온갖 번뇌의 근본인 것이다. 또한 무명주지는 모든 染法을 내는 근본이며, 모든 生滅을 일으키는 인이다. 왜냐하면 모든 染法은 불각상이기 때문이다. 勝鬘經에는 아라한·벽지불 등은 第四有愛住地까지만 끊을 뿐 無明住地는 끊지 못하고, 부처님만이 끊었다고 한다.

<本業經>에서는 四住地前에는 다시 범이 일어남이 없기 때문에 無始의 無明住地라 이름한다고 하였다.<sup>46)</sup>

그리고 무명에 두 가지 뜻이 있으니 染汚無明과 不染汚無明이다. 染汚란 斷理無明을 말하고 事에 대해 無知인 斷事無明이 不染汚無明이라고 한다. 유식종에서는 앞의 넷을 번뇌장의 종자로 보고 뒤의 하나 <無明住地>를 소지장의 종자라고 했다 또 처음의 <見一處住地>는 見惑으로 見道所斷이고 다음의 셋은 修惑으로 修道所斷이라 했으며, 뒤의 하나는 三界一切의 무명으로, 心體의 慧明을 덮은 치암이니 一切惑의 근본임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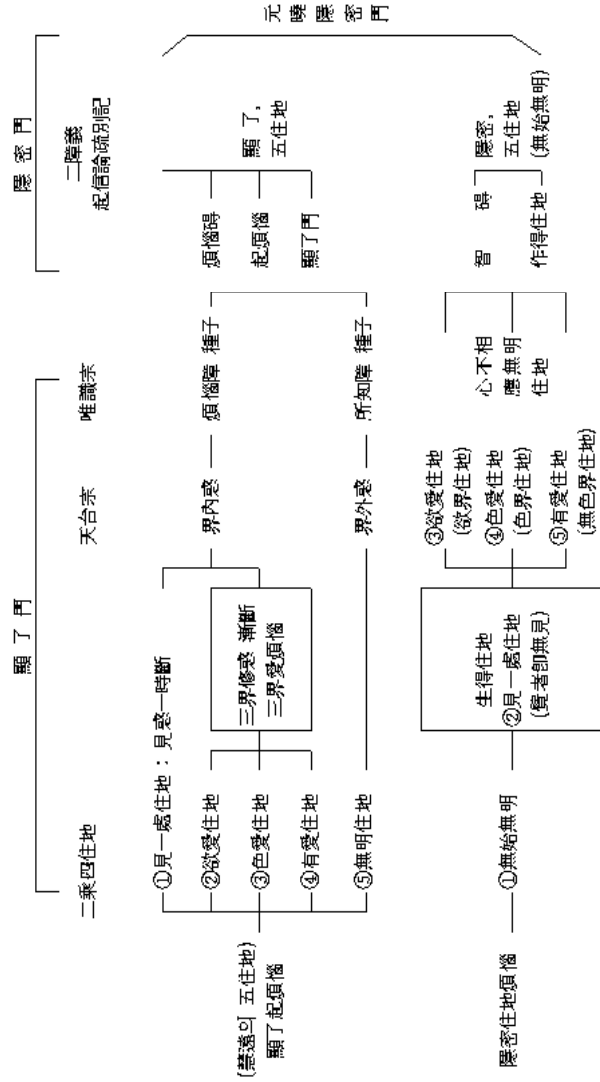
원효가 이장의에서 세운 이종번뇌 가운데 住地煩惱의 四住地는 위에서와는 차원이 다르다. 곧 위의 오주지는 현료문의 起煩惱일 뿐이고 여기서의 四住地는 은밀문의 주지번뇌로 이것을 혜원이 승만경 등에 의해 정립한 五住地煩惱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은밀문의 이 무시무명주지는 다시 生得住地와 作得住地로 二分하는데 作得住地는 生得住地에 의지해서 이차적으로 전개된 무명주지이므로 생득주지는 더욱 근원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생득주지는 견일처주지라고도 하는데, 그러나 은밀문의 견일처주지는 현료문의 견일처주지와는 전적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 앞에서의 견일처주지는 四諦를 사무쳐 見惑을 治斷함으로 我空을 보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근본무명을 깨닫는 은밀문의 범공각이기 때문이다. 먼저 현료와 은밀 두 문의 오주지번뇌를 도표로 보이면 [표 1]<sup>47)</sup>과 같다.

45) 『二障義』, p.36.

46) 『菩薩瓔珞本業經』 卷下(대정장24, p.1022上).

47) 慧遠의 『大乘義章』 卷5와 元曉 『二障義』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함.

[ 丑 1 ] 二門의 住地煩惱



元曉는 隱密門에서의 見一處住地에 대해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不覺一如가 홀연히 일어나지만 그 시작이 없기 때문에 生得이라 하며, 이러한 生得住地는 그 미한 곳이一如 하기 때문에 一處라 하는데, 一處와 一相이 평등하여 能見所見의 차별이 없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差別相으로 보는 것을 見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으면 見은 사라진다.<sup>48)</sup>

혜원 및 유식에서 말하는 현료문의 오주지번뇌에서는 見一處住地는 我空의 見惑만을 끊을 뿐이지만, 원효의 은밀문에서 말하는 견일처주지는 무명주지의 무명도 견도에서 모두 끊어진다고 하였다. 곧 주지번뇌를 “평등차별에 대한 根本不覺”이라고 정의하므로, 은밀문 가운데에 根本無明인 智碍와 같은 것이라 하였다.

작득주지는 생득주지가 일으킨 三有心(欲·色·無色界)으로 그 대경이 곧 진여인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三有의 번뇌를 일으킨다. 三有心이 있음으로 해서 대경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고 본래부터 생래적인 미함이 아니란 뜻으로 작득이라 한다.

또한 이 三有心이 자신에 맞는 대상을 貪愛함으로 말미암아 그 경계에 대해 한가지 미혹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은 다 애착하는 마음의 작용에 속하기 때문에 유애수소섭이 된다고 했고 그래서 有愛數住地라고 했다.

이 作得住地에는 욕애주지, 색애주지, 유애주지가 있으며, 혹은 欲界住地·色界住地·無色界住地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3種의 작득주지는 저 현료문의 欲愛·色愛·有愛의 三住地와는 근원적으로 달라서 생득주지와 더불어 그 不覺相에 있어 麤細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이 넷을 무시무명주지라 이른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효의 은밀문과 현료문, 그리고 혜원의 3중의 은현의 이장설은 동일하게 『승만경』의 번뇌설을 기초로

48) 『二障義』, p.36.

하여 조직된 것이다. 그리고 무명주지를 바탕으로 은밀문과 현료문 혹은 은과 현의 양 쪽의 번뇌를 연결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곧 원효의 은밀문과 현료문이라고 중층의 번뇌설 구조는,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혜원의 『승만경』의 번뇌설을 바탕으로 한 구조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 V. 결론

이상으로 원효의 『이장의』가 성립한 배경을 몇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소지장의 문제인데, 이것은 執我之心으로서의 제7식 곧 제7말나식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곧 7말나식의 개념이 구체화되면서 유가행과 안에 번뇌설 중 소지장에 대한 개념이 발생하고, 그것을 계기로 번뇌설은 번뇌장과 소지장의 二障說로 정리되게 된다. 곧 제7말나식의 개념이 명료해지지 않으면 소지장의 개념 역시 불명료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장의』의 경우 제7말나식과 소지장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이고 명료한데, 이것은 현장이 번역한 신유식 계통의 경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원효가 『이장의』에서 제8식을 망식으로 간주하는 듯한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장이 신유식 계통의 경론을 번역하기 전에는 智障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제7말나식과 연결된다는 의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지장을 중심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은밀문의 것이든 현료문의 것이든 구유식의 영향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은밀문이 구유식 특히 『대승의장』 「이장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이평래와 Charles Mulle의 견해,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석길암의 견해를 중심으로 『대승의장』 「이장의」와 『이장의』

의 은밀문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혜원은 이장설을 정리함에 있어서 제7말나식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원효는 은밀문 역시 현료문과 마찬가지로 제7말나식 및 ㄸ으로서의 第八阿梨耶識을 고려하여 이장설을 정리하고 있다는 지적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혜원이 이장설을 3중의 중층적 구조로 조직하는 형태와 원효가 은밀문과 현료문을 조직하는 기본 구조는 둘 다 『승만경』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원효가 다시 이것을 혜원의 기본적 개념에 따라 隱現으로 배대하는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효의 『이장의』는 이장설의 전체적인 조직 구조는 혜원의 『대승의장』 「이장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장의』 내의 은밀문과 현료문에서 설하는 각각의 識說과 所知障 및 智碍는 오히려 신유식 계통의 영향을 받아서 성립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약호 및 참고문헌

大正藏: 大正新修大藏經

韓佛全: 韓國佛敎全書

『二障義』: 橫招慧日·村松法文 編[1979], 『新羅 元曉 撰, 二障義』, 平樂寺書店.

『增一阿含經』 卷46, 大正藏2(中部 No9 Vol 1),

『解深密經』 卷3, 大正藏16

『菩薩瓔珞本業經』 卷下, 大正藏24

『大毘婆沙論』 卷99, 大正藏27

『俱舍論』, 大正藏29

『瑜伽論』 卷33, 大正藏30

『成唯識論』 卷九, 大正藏31

『大乘起信論』, 대정장32

慧遠, 『大乘義章』 20末, 大正藏44

元曉, 『無量壽經宗要』, 韓國佛敎全書 卷1, p.558上.

元曉, 『金剛經三昧經論』中, 韓國佛敎全書1

圓測, 『解深密經疏』 卷22(한국불교전서 제1책 수록본 및 中國 圓光佛學院 中華民國 75年 8月 교주본)

吳亨根

[1988] 「元曉의 二障義에 대한 考察」, 『신라문화』 5

김수정

[1995] 「二障煩惱에 대한 연구 : 원효의 이장의와 기신론소별기를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논문

李平來

[1996] 『新羅佛敎如來藏思想研究』 「VII.元曉의 煩惱·所知 二障說에 대하여」, 서울, 民族社

석길압

[2009] 「지·섭론학파의 교섭과 심식설의 착중」, 『불교학연구』 23

[2010] 「지론종 남도파의 아리아식 이해에 대한 검토」, 『보조사상』

34, 보조사상연구원

[2011] 「元曉『二障義』における隱密門の形成に關する再檢討」, 『印度學佛敎學研究』 122

Muller, Charles

[2006] 「起信論の二障に於ける慧遠と元曉」, 『印度學佛敎學』 55-1

鎌田茂雄

[1954] 「如所有性と盡所有性」, 『印度學佛敎學研究』 6

吉村 誠

[2007] 「攝論學派の心識說について」, 『駒澤大學佛學部論集』 34, 駒澤大學佛學部

## Abstract

A Study on the Background of Formation of  
Wonhyo(元曉)'s *Ijangeui*(二障義)

Su Jeong  
Dongguk Univ.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background of formation of Wonhyo(元曉)'s *Ijangeui*(二障義, *Meaning of Two Hindrances*) from three aspects as follows.

The first is the aspect of the Cognitive Hindrances(所知障) which are concerned with the Seventh Consciousness of Manas(第七末那識). Shaping of the Consciousness of Manas generated the concept of the Cognitive Hindrances in the teaching of afflictions of the Yogacara School, and, in the end, the school classified afflictions or hindrances as two hindrances of the Afflictive Hindrances(煩惱障) and the Cognitive Hindrances. Were it not for clear concept of the Seventh Consciousness of Manas, that is to say, there could be clear concept of the Cognitive Hindrances. In the *Ijangeui*, the Seventh Consciousness of Manas and the Cognitive Hindrances are explained clearly and concretely, which seems to be affected by the Newly Yogacara School texts translated by Xuanzang(玄奘), and, also, to be related to the way Wonhyo took the Eighth Consciousness as the deluded.

The second is the Gate of the Hidden(隱密門). Huiyuan(慧遠) explains the theory of two hindrances regardless of the Seventh Consciousness whereas Wonhyo does with consideration for the Seventh and the deluded Eighth Consciousness in the Gate of the Hidden as well as in the

Gate of the Disclosed(顯了門).

The last is the structure of the theory of two hindrances. Huiyuan's theory has the triple structure on the basis of the *Shengman-jing*(勝鬘經, *Srimaladevi sutra*). Wonhyo, also on the basis of the same sutra, organizes the Gate of the Hidden and the Gate of the Disclosed according to Huiyuan's basic structure.

To conclude,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Ijangeui* written by Wonhyo is affected from the Chapter of 'Meaning of Two Hindrances(二障義)' in the *Dashengyizhang*(大乘義章, *Script on the Meaning of Great Vehicles*) written by Huiyuan, and his respective explanations on the Consciousness and the Cognitive Hindrances in the Gate of the Hidden and the Gate of the Disclosed, are influenced by the Newly Yogacara School.

**Key Words :**

Wonhyo (元曉), Huiyuan (慧遠), *Ijangeui* (二障義, Meaning of Two Hindrances), *Dashengyizhang* (大乘義章, Script on the Meaning of Great Vehicle), Afflictions (煩惱), Newly Yogacara School (新唯識)